

이집트, 대규모 MTO 플랜트 건설

Methanol 600만톤 생산계획 추진 ... UOP-Hydro 프로세스 도입으로

이집트의 사기업인 Eatco(Egyptian Arab Trading)가 이집트 Damietta에 MTO(Methanol-to-Olefins) 14억달러 생산단지를 건설할 것으로 보인다.

생산단지는 Eatco의 신설 자회사인 Eatco Petrochemicals이 소유 및 운영할 것으로 보이며 이집트의 국영기업인 Egypt Petrochemical Holding이 최근 발표한 석유화학 프로젝트와는 별개이다.

Eatco는 Lurgi의 Mega Methanol 기술로 메탄올 6000톤을 생산하고 UOP-Norsk Hydro MTO 프로세스를 사용해 에틸렌(Ethylene) 30만톤 및 프로필렌(Propylene) 25만톤으로 전환할 계획이다.

또, Dow Chemical 및 Univation Technology와 기술의향서를 체결해 각 기업의 프로세스를 HDPE 30만톤 및 PP(Polypropylene) 25만톤 플랜트에 사용키로 했다.

Jacob Engineering이 전반적인 엔지니어링 및 프로젝트 관리를 맡고 Linde가 Polyolefin 플랜트의 건설을 수주했다. 프로젝트 투자비용의 70%는 차입금으로 조달되고 나머지는 자기자본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.

Eatco는 합작사를 찾고 있는데 Dow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. Eatco는 Egyptian General Petroleum의 가스원료를 구입하는 데 최저가격 100만BTU당 75센트를 추진하고 있다.

합작 파트너를 찾아 기업을 신설하는 데 약 12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완공은 계약체결로부터 45개월 뒤로 예정돼 있다.

Eatco는 나이지리아 Eurochem Technologies의 Lekki 생산단지에 이어 세계 제2위 MTO계 석유화학 프로젝트를 건설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<Chemical Journal 2003/10/08>